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폐막(5월9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용봉동 비엔날레본전시관에서 만나는 문경원 작가의 영상(왼쪽)과 안젤로 플레사스의 작품.

광주비엔날레 폐막 10일 남았어요

5월 9일까지 본전시관 등서 진행
오롯이 전시 집중, 차분한 분위기
5만6천여명 찾아... 사전예약 관람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를 뚫고 시작된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폐막(5월9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행사는 예전보다 일정이 대폭 축소된 39일간의 여정인데다 방역 문제로 사상 처음 월요일 휴관도 적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전시관람 일정은 더 짧다. 올해는 단체관람이 사라지고, 행사 분위기를 돋우던 다양한 이벤트들도 거의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시에 집중하며 차분히 관람하는 분위기다.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관 관람객은 하루 평균 1700명으로 28일까지 4만여명이 다녀갔으며 외부 전시관까지 합치면 모두 5만6000여명이 관람했다.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 전시장을 찾아 현대 미술의 향연에 빠져보자.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서는 40여개국 69작가(팀)가 참여해 40점의 커미션 신작 등 모두 450여 작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주제는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극장 등 광주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글로벌 프로젝트 ‘메이투데이’, GB 커미션,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관련 전시도 진행중이다.

본 전시관에서는 무료로 개방된 1전시장이 인

상작이다. 북유럽 원주민 사미족 출신인 오우티 피에스키의 ‘함께 떠오르기’, 한국의 샤머니즘, 과잉 소비, 현대 정치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김상문 작가의 ‘카트’ 등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존 제라드 영상 설치 작업 ‘옥수수 작업(코리브)’, 아나 마리아 밀란 ‘승격’ 등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 인기가 높다. 특히 이곳에 설치된 작가들의 작품은 2-5전시장에서도 만날 수 있어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바깥으로 창을 낸 3전시장은 관람객들에게 ‘쉼’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며 통창 근처에 설치된 아나 마리아 밀란의 ‘행복한 사람들’ 영상작품에서는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3전시장에서는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의 ‘전시 중단’ 요청으로 논란이 된 광주 출신 이상호 작가의 ‘일제를 빛낸 사람들’이 오히려 화제가 되면서 작품 앞에 머무는 이들이 많아졌고,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자비로운 관세음보살’과 ‘통일염원도’ 등도 인상적이다. 5전시장에는 세실리아 비쿠냐 작가가 직접 제주를 찾아 해녀들의 ‘습비소리’를 녹음하고 그들의 습터를 형상화한 작품 등 여성작가들의 다채로운 시선을 볼 수 있다.

선교사들의 차고지와 사택을 리노베이션한 호랑가시나무아트플라자에서는 5명의 작가를 만날 수 있다. 4·3항쟁 등 공동체적 트라우마와 치유를 다양한 낱새를 입힌 37개의 화산석과 70년간 써 온 제주도민의 일기에서 가려뺀 37개의 글로 표현해낸 작품은 한참 발길을 머물게 한다. 코라크리트 아루나논드차이의 ‘죽음을 위한 노래’는 민주주의에 저항한 이들과 남아있는 이들이 전하는

‘애도의 작업’을 다양한 음악과 영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대형 방식 위에 앉거나 누워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11명의 작가 작품을 전시중인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고대 유물과 이를 발굴하고 전시하는 인간의 관계를 무용과 영상으로 풀어낸 테오 에세투 작가 ‘고스트 댄스’ 작품 등이 인상적이며 광주극장에서는 거문고 연주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과 음악을 헤드셋을 쓰고 감상하는 주디라들의 ‘우리를 둘러싼 세계보다 따뜻한’ 등 3작품이 전시됐다. 광주문화재단에서 만나는 타렉 아투이의 ‘엘레멘탈 세트’는 전통악기, 율기, 청자, 한지 등 한국의 전통적 미학을 담아 제작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이 도구를 사용해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볼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것 사이’전이 열리는 옛 국립광주병원엔 전시작들과 장소의 공간성이 어우러지며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강운·김설아·이연숙·송필용·문선희·이세현·임남진·박화연·이인성·정선휘·정정주·최기창 등 광주 출신 12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데이지 꽃길과 초등생의 5월 이야기가 어우러진 문선희 작가의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_목소리’, 피를 뽑는 채혈 다발을 모티브로 활용한 김설아 작가의 ‘불면의 숲조림 비명의 기억’이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관련해 시간별, 공간별 입장 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나 티켓링크 사이트를 통한 사전 예매하는 게 좋다.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창작음악과 함께하는 광주 예술인문학’ 5월4일 첫 강연

인문학 강의와 창작곡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문화창작소그레이스가 주최하는 ‘창작음악과 함께하는 광주 예술인문학’이 5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살롱드테오(광주 남구 용대로53번길 6-4 2층)

에서 열린다. 5월 4일 열리는 첫 강연에는 쉼아트주 정현기 대표가 강사로 나서 ‘음악으로 양립을 여행하다’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이어 5월 11일 광주시립미술관 김희량 학예연구실장이 ‘제일동 포 작가와 하정웅 컬렉터’를 주제로 강연하며,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은 ‘광주의 역사와 건축’(5월 18일)을 준비했다. 또 살롱드테오 구태오 대표가 ‘커피와 인생’(5월 25일)을 강연하며 마지막 시간에는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형철 교수가 ‘삶에 대하여’(6월 1일)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모든 강연에는 작곡가 이승규가 창작한 음악들이 흐른다. 선착순 사전예약제, 무료 입장. 문의 010-3093-4828. /전은재 기자 ej6621@

‘오월의 노래’ 세계 곳곳에 울려퍼진다

전국 음악인들 5·18 기념 광주서 공연...유튜브 공개

‘노래로 전하는 광주정신’ 5·18민중항쟁 41주년을 기념해 전국 음악인들이 5월 한 달 동안 광주를 찾아 공연을 펼친다. 총 31팀이 참여하는 공연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며, 매일 오후 5시 18분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오월의 노래’는 1980년 이후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국의 음악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어 온 ‘거리음악제’의 명맥을 잇는다. 2015년 5월, 옛 전남도청 앞에서 다시 시작된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에는 민주, 평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0년부터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될 예정이다. 올해 첫 무대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로 구성된 밴드 ‘여울’이 장식한다. 이어 대구의 김강주, 노래패 ‘우리나라’의 이광석과 한선희, 백자가 각각 솔로로 참여하며, 싱어송라이터 박창근, 시노래가수 박경하, 음악노동자 이진우, 싱어송라이터 이형주와 버둥 외에도 전국의 많은 팀들이 함께한다.

특히 5월 18일에는 민중가수 지민주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그룹 ‘노래로 물들다’의 공연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오월의 노래는 제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줌의 소리’의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문의 062-682-051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오월의 노래’ 공연 모습.

〈오월의 노래 제공〉

미얀마 미술 ‘망고나무숲을 흔드는 불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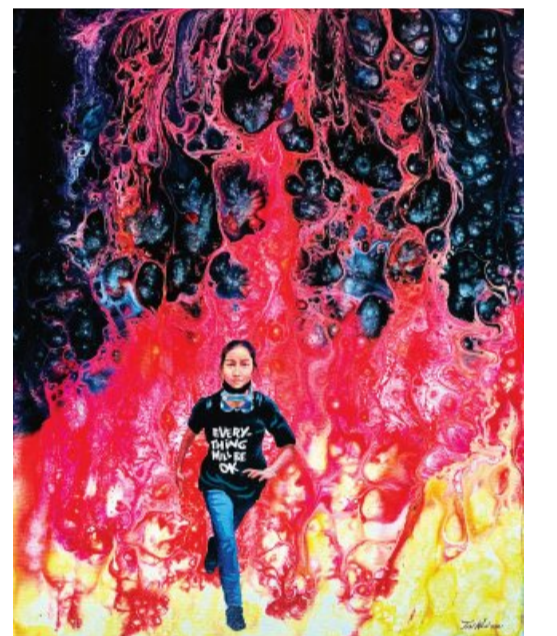
메이홀 오월 특별전, 5월1일~7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며.’ 해마다 오월전을 열어서 시민자생문화공간 광주 정신 메이홀(동구 문화전당로 23번길)이 올해는 특별한 오월전시를 기획했다. 군부에 저항하며 자유와 민주를 바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전시다.

메이홀 오월 특별전이 오는 5월1일부터 7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난다. 미얀마 저항미술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의 제목은 ‘망고나무숲을 흔드는 불바람’이다. 메이홀과 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미얀마 광주연대 등 여러 단체가 함께 힘을 보태 마련한 전시다.

이번 전시를 위해 미얀마의 철손이 넘은 원로 작가에서부터 젊은 작가들까지 30여명이 참상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용기있게 붓을 들었다. 신분 노출의 위험 때문에 작가들의 이름을 밝히지 못한채 전시장에 걸릴 그림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이 작품들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묵직한 지 알 수 있다. 미얀마의 ‘리얼리즘 저항미술’을 한국에서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가들은 생생한 투쟁의 현장을 화폭에 담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이들의 모습을 그려나갔다. 미래의 주인이 될 아이들의 환한 미소와 슬픈 얼굴은 관람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준다. 메이홀 전시가 종료되면 전남대학교 박물관(용봉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_망고나무숲의 불바람’

관)에 옮겨 한국 작가들과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의진 메이홀 관장은 “‘아시아 민주 역사의 시위와 연대, 뿌려진 피를 기리고 투쟁하는 이번 전시에 위대한 광주 시민들의 용기 있는 격려와 성원을 바란다’며 “망고나무 숲에 민주주의 열매가 가득 열리는 그날까지 광주는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람 문의 010-6791-805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연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역박람회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인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서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